

격조 있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Upgrading the Urbanscape

근래 우리나라 국토나 도시의 경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호응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안목이 높아지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건축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도시미관에 주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토경관이나 도시경관의 전반적인 질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개탄할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경관 악화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나는 진단한다. 하나는 농어촌주택의 색깔이다. 70년대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을 통해 오색찬란(?)한 색채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원풍경을 혼란스럽고 품위 없게 만들고 있다. 한 시야에 들어오는 마을에 빨강·주황·녹색·파랑·회색이 지붕색으로 혼재하고 벽은 벽돌·타일·여러 가지 색의 페인트 등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 거기에 옥상 물탱크의 노랑·파랑색이 가세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도시나 전원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경관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요소는 아파트인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과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외관, 엄청난 매스가 시야를 가로막는 풍경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최근 지어지는 초고층 아파트가 종래의 판형(板形) 또는 상자형에서 벗어나 높이의 변화와 형태·입면의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발전이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일부 고급 아파트에 국한되고 있다. 아파트의 외장색도 너무 강하고 측벽에는 예외없이 화려한 슈퍼그래픽을 그려넣어 시각적 안정감과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시의 가로(街路)경관을 세계 최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은 옥외광고물 즉 간판이다. 절제되지 않은 고채도의 색이 마구 쓰이고 있고 그 조악한 디자인과 업소당 간판 수, 크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모두 거리의 풍경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간판으로 건물 외벽을 거의 덮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유리창까지 간판으로 활용하는 그 상흔에는 그저 탄복(?)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미국의 건축사 프랭크 게리가 우리나라 도시를 보고 쓰레기더미 같다고 했을까. 수년전 미국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다녀온 인상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2005년에 노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 도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아름답게 만들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내에 부랴부랴 기획단이 만들어졌고 초기에 필자도 자문위원으로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발전하여 2006년에 '건축 선진화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해보니 건축계 각 분야 전문가가 주축이 되고 일부 관련분야도 참여했는데 건축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큰 문제 즉 농어촌 주택의 색채, 아파트의 외관과 입지, 간판의 난립, 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우리나라 도시와 국토의 경관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농어촌 주택의 색채, 아파트의 외관과 입지, 간판의 난립, 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우리나라 도시와 국토의 경관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건축사는, 설계시 단일 건물의 디자인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으로 도시

또는 가로의 문맥을 존중함으로써 차분하고 품격 있는 거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층수·형태·입면·외부마감재 등에 변화를 주도록 건축주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간판도 그 위치·크기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건축설계에 반영해주면 지금과 같은 난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건축사는 건축설계 외에도 각종 심의·자문 등에 관여하므로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건축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초기에 아젠다로 나왔던 건축시공기술의 첨단화, 시공발주제도의 합리화, 심지어 건축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낮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근래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큰 미덕인양 회자되는 사회분위기지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과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하다. 시각환경도 수질·공기·음향과 같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향하는 추세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관지구 지정과 건축심의, 도시경관 심의 등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축사 또는 건축계가 경관개선에 기여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설계시 단일 건물의 디자인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으로 도시 또는 가로의 문맥을 존중함으로써 차분하고 품격 있는 거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형태·색채와 대비가 강하지 않은 것이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강남대로에 있는 마리오 보타 설계의 강남 교보빌딩은 그 자체로서는 수작이지만 벽돌색의 큰 매스가 기존의 거리를 압도하는 것은 도시문맥을 존중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동숭동 대학로의 건물들은 붉은 벽돌이라는 거리의 문맥을 유지하고 있어 특색 있으면서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가로의 종단점, 가각, 광장, 공원 등 독립적인 입지에서는 기존 건물과 차별되는 오브제적 디자인이 더 도시를 풍요롭게 할 수 있겠다.

아파트 디자인에 관해서는 거기 관여하는 변수가 하도 많아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층수·형태·입면·외부마감재 등에 변화를 주도록 건축주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강한 색채, 천편일률적인 측벽의 슈퍼그래픽 등도 지양하는 게 좋다.

간판도 그 위치·크기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건축설계에 반영해주면 지금과 같은 난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간판이나 표지판 등을 포함하는 건축 외부 환경디자인을 건축사가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건축사는 건축설계 외에도 각종 심의·자문 등에 관여하므로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연경관을 제외한 모든 인공경관은 그 매스나 공간구성상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건축물이 모여 가로를 구성하고, 집이 마을을 만들고, 가로와 마을이 도시와 국토를 형성한다고 할 때 경관에 관해 건축계는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 어지러운 경관 때문에 천박함을 면하기 어렵다. 경관이 수려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높일 뿐 아니라 인류 문화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